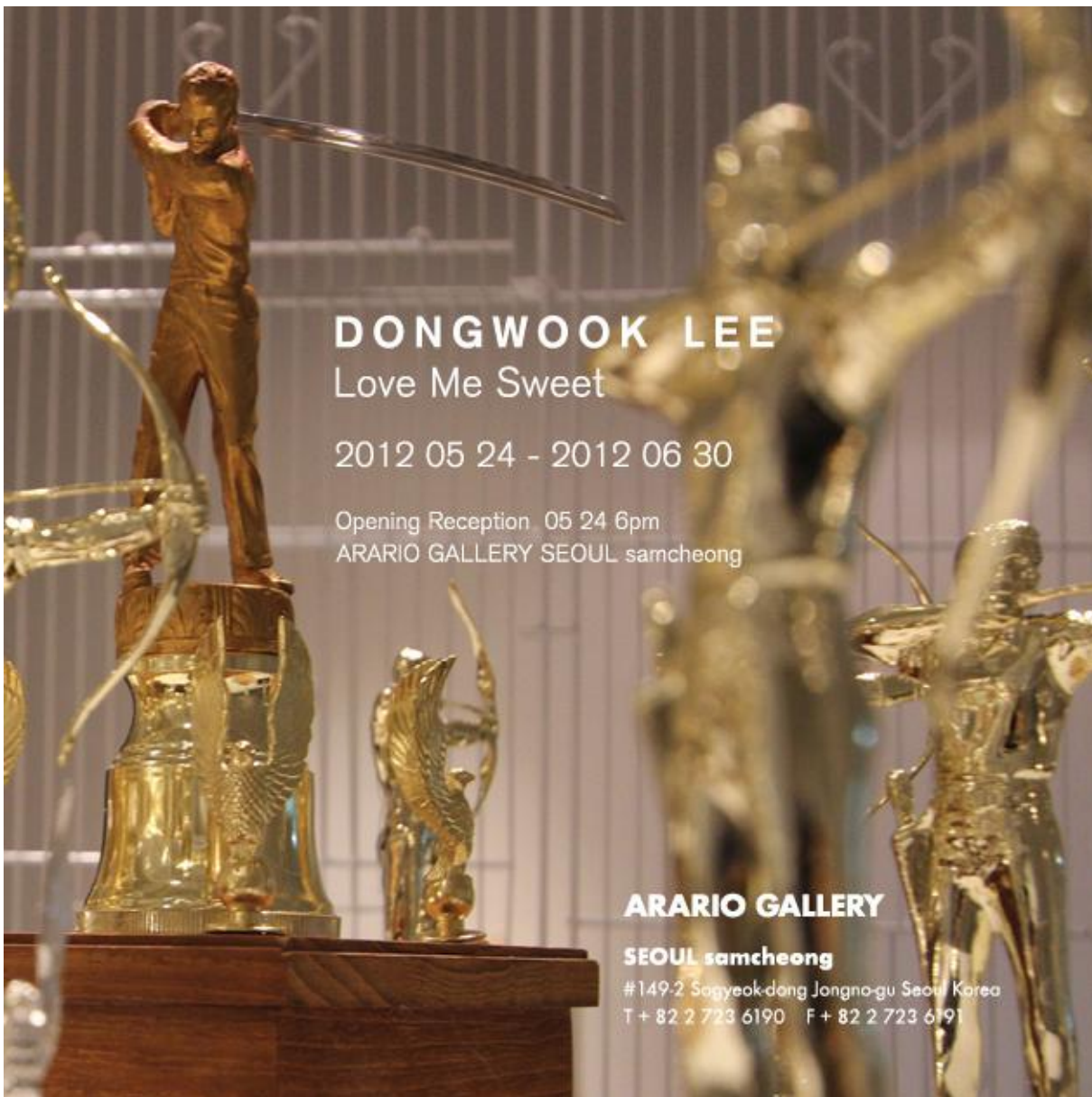


이동욱
Love Me Sweet



DONGWOOK LEE

Love Me Sweet

2012 05 24 - 2012 06 30

Opening Reception 05 24 6pm
ARARIO GALLERY SEOUL samcheong

ARARIO GALLERY

SEOUL samcheong

#149-2 Sogyeok-dong Jongno-gu Seoul Korea
T + 82 2 723 6190 F + 82 2 723 6191

전시 제목 | Love Me Sweet

기간 | 2012. 05. 24(목) – 06. 30(토)

장소 |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전시 작품 | 조각, 설치 15 여 점

2000년대 초반 등장한 한국의 젊은 조각가 군을 대표하는 이동욱은 그동안 스컬피라는 소재로 만든 정교하고 사실적인 조각을 통해 완벽한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숨겨진 폭력적이고 낯선 상황의 대비를 표현하였다. 정확한 통제 하에서 모습을 드러낸 완벽하게 짜여진 작품들의 구성은 작가가 제어할 수 있는 선의 극단까지 밀어 부치는 작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통제의 바탕에서 나온 조각 작품들을 마주한 관객들은 우선 조각의 작은 크기에 놀라고, 작은 조각에서 전해지는 생생하게 사실적인 형태와 색, 표면의 느낌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신작들은 기존 작품의 특성들을 포함하면서도, 개별적인 조각들이 마주한 작은 무대들을 크게 확장하여 좀더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의 인스톨레이션을 선보인다.

2003년 첫 개인전부터 지속적으로 집중한 주제인 기르기(Breeding)는 원래 작가의 수집 및 동물을 기르는 취미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기르는 자와 길러지는 자, 이들 사이를 지배하는 기르기의 시스템을 포착한다. 이러한 전시 작품의 예는 <Good Boy (2012)>라는 작업이다. 작품의 중심에는 위태로이 서있는 한 남자가 있다. 마치 먹이사슬을 연상하듯이 남자의 두 손에는 여러 가닥의 줄이 붙들려 있고 이 줄에는 다양한 형태의 30여 마리의 개들이 매여 있다. 인물과 개들은 매우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이들의 균형감은 어느 누군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것이다. 굿보이(Good Boy)란 자신의 반려견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하는 칭찬의 말이다. 하지만 이 굿보이가 개를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묶인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다만 사회 내에 여러 관습과 터부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암묵적인 질서 하에 놓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물의 자세와 형태에 따라 내가 가해자일수도 피해자일수도, 혹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신작인, 전시 제목과 동명인 <Love Me Sweet (2012)>은 트로피 형태로 지어진 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꿀과 같은 달콤한 물질이 처덕처덕 흘러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벌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트로피는 꿀과 함께 녹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꿀처럼 달디 달았던 그 어떤 영광의 시간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영광과 지우고 싶은 과거 (2012)>는 새장과 트로피, 실제 새들로 구성된 인스톨레이션 작품이다. 반짝이는 트로피들, 새장에 갇힌 새들은 트로피 컵에 담긴 모이를 먹고 자란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새장 속에 놓여있다. 반짝이는 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들의 배설물들과 각종 오물들로 더럽혀져 그 빛을 잃는다. 새장에 갇힌 새들은 그 속에서 부대끼며 지내다 결국 죽음까지 다다른다.

가해자와 피해자, 영광과 성쇠 사이의 간극은 모자이크 형태를 사용한 인물 작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물들의 한 부분이 마치 텔레비전 영상에서 폭력적인 장면 등이 방영될 때 사용하는 모자이크 처리처럼 보이는 네모난 조각들에 의해 가리워져 있다. 피와 살색이 비치는 작은 조각들을 통해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폭력적인 한 장면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상황에서 행위를 가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유추해 볼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그 어떤 해석도 제거된 상황에서 잔혹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은 다만 그 상황의 가치 중립적이고 유일한 목격자일 뿐이다.

이렇듯 모호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인물에 대한 고찰은 지난 2006 년 개인전을 통해서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전시장을 거대한 양어장으로 변신했던 전례와는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거대한 새장과 같은 더 극적인 상황이 제시되며, 장치는 보다 확대되고, 전시 작품 또한 확대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작가 소개

이동욱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마쳤다. 2012년 <Love Me Tender> (두산 갤러리, 뉴욕, 미국), 2008년 <Cross Breeding> (아반떼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2006년 <Breeding Pond>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한국), 2004년 <Mother Breeding> (브레인 팩토리,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한 2011년 스웨덴 옅살라 미술관과 2009년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2009년 런던 사치 갤러리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내년 1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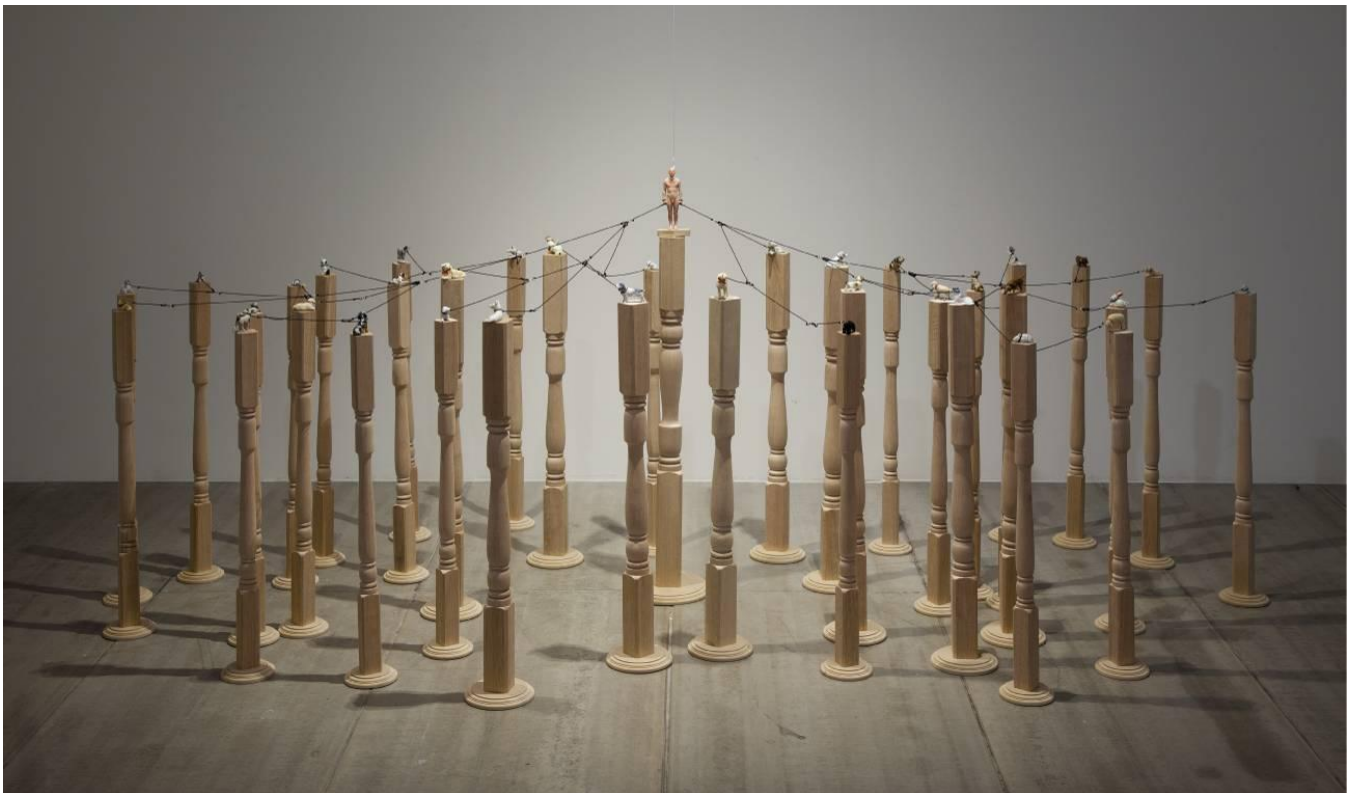
대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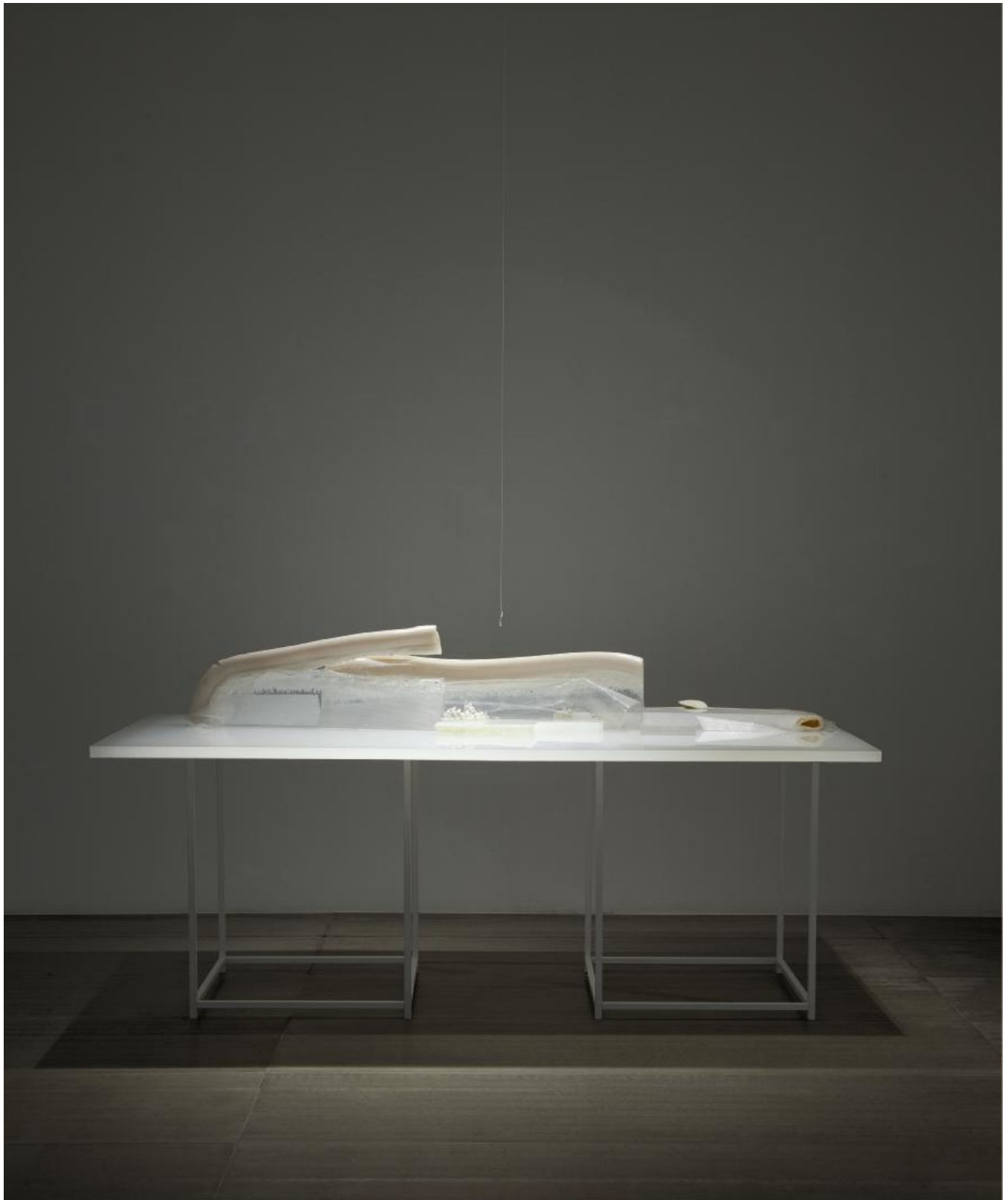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전시 전경



지켜야 할 영광과 지우고 싶은 과거_2012_혼합 재료_129x195x87cm, 좌대: 49x216x109cm



Good boy_2012_혼합 재료_80x120x120cm



아직 제목이 없다_2012_혼합 재료_32x220x110cm



Dress_2012_혼합 재료_18x12.5x5.6cm, 좌대: 120x40x40cm



Love Me Sweet_2012_혼합 재료_가변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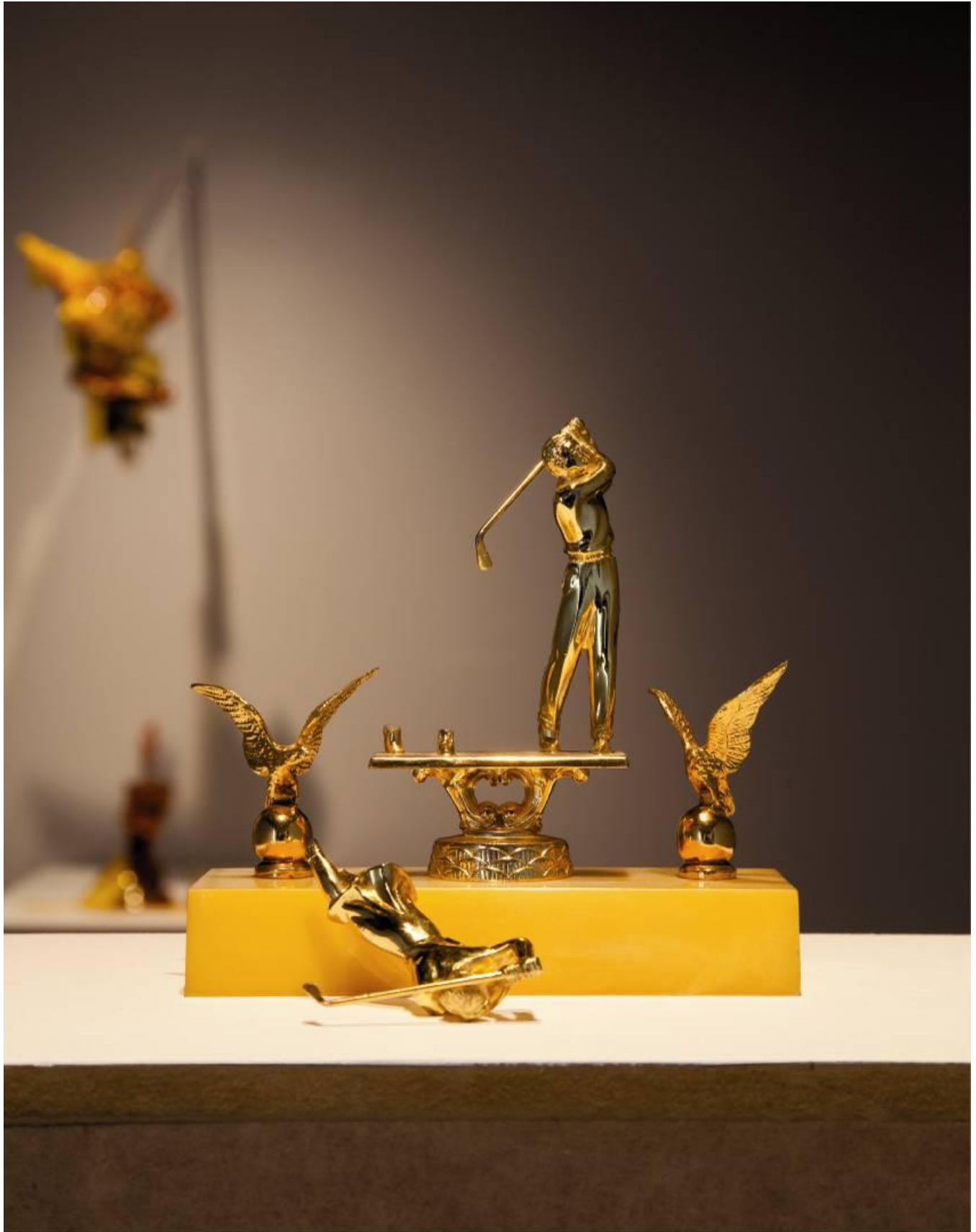
Love Me Sweet_2012_혼합 재료_가변크기_상세 이미지



Love Me Tender_2012_혼합 재료_63.5x19.5x14cm, 좌대: 120x40x40cm



Love Me Tender_2012_혼합 재료_63.5x19.5x14cm, 좌대: 120x40x40cm _ 상세이미지



Nice Shot_2011 _혼합 재료_17x7.5x6cm, 좌대: 80x40x30cm

이동욱 (b. 1976, 대전 출생)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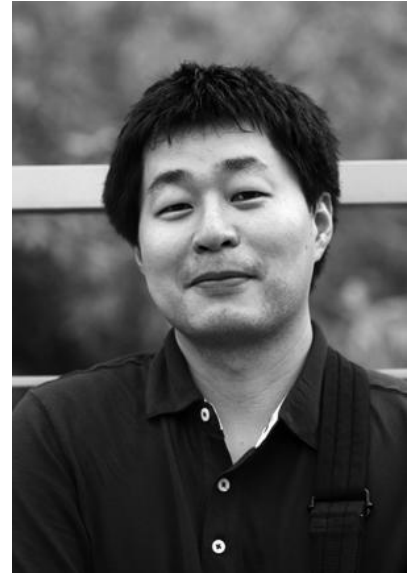
-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졸업, 서울, 한국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

- 2013 샬로트루트 갤러리, 스톡홀름, 스웨덴 (예정)
2012 *Love Me Sweet,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서울, 한국
Love Me Tender, 두산 갤러리, 뉴욕, 미국
2008 Cross Breeding, 아반테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2006 *Breeding Pond,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삼청, 서울, 한국
2004 *Mouthbreeder, 브레인 팩토리, 서울, 한국
2003 *Inbreeding, KEPCO 플라자, 서울, 한국

단체전

- 2011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아트앤디자인 미술관, 뉴욕, 미국
Artists with ARARIO 2011, Part II,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청담, 서울, 한국
A Glocal View: Korean Contemporary Art, 읍살라 미술관, 읍살라, 스웨덴
38N Snow South: Korean Contemporary Art, 샬로트루트 갤러리, 스톡홀름, 스웨덴
2010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천안, 한국
Made in Popland,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2009 녹색한국으로부터의 반향-문화로 표현한 기후변화,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프레데렉스 시청, 코펜하겐, 덴마크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보고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Conflicting Tales: 버거컬렉션(Buger Collection) 개관전, 짐머슈트라세, 베를린, 독일
*Ultra Skin, 코리아나 미술관 스페이스 C, 서울, 한국
*Korean Eye: Moon Generation, SC제일은행, 서울, 한국 &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2008 Daily Life in Korea, 한-태 수교50주년 기념전, 더퀸즈 갤러리, 태국
백현진 구동희 이동욱: 한국작가 그룹전,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아르헨티나 국립현대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7 한국현대미술: 원더랜드, 중국 국립 현대 미술관, 베이징, 중국
Disturbed: New Art from Kroea, 페레스 프로젝트, 베를린, 독일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산티아고 현대미술관, 산티아고, 칠레
*Skin of/ in Contemporary Art, 오사카 미술관, 오사카, 일본
2006 Give Me Shelter, 유니온 갤러리, 런던, 영국
Egomania, 시비카 갤러리, 모데나, 이탈리아
2005 *아름다운 냉소, 아라리오 베이징 갤러리, 베이징, 중국



2004 일상의 연금술,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한국

아트 인 컬처 젊은 작가 공모전 New Face 2004,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2003 현대미술의 단면, LCM 갤러리, 일산, 한국

2002 나비의 꿈,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도록 발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1 두산 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 미국

소장

Burger Collection, 독일

Rubell Family Collection, 미국

Lohengrin Enterprises, 미국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금일미술관, 중국

아라리오 컬렉션, 한국